



로봇/기계/운송 양승운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4/11/04~2024/11/10]

2024.11.11

[로봇]

- 이번 주의 이슈: 엔비디아의 야심
- 해외에서는 연이어 로봇 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 이번엔 로봇 AI
- 24년 로봇 투자 강한 회복세. 초기 펀딩은 감소하고, 후기 펀딩 집중

[방산]

- 이번 주의 이슈: 트럼프 이후 방산 리스크 점검
- 해외 함정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 미국은 기회지만, 그 외는 가능성은?
- 트럼프 당선 후 차차 실현될 러-우 종전과 중동 긴장감 고조

[항공]

- 이번 주의 이슈: 10월 항공 데이터 및 3분기 항공 운임 동향
- 트럼프 당선은 항공에 어떤 영향? 일단 미국 항공사에는 Positive
- 인천은 이제 마무리. 다시 지방공항으로 향하는 LCC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우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로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의미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시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배포·전송·변형·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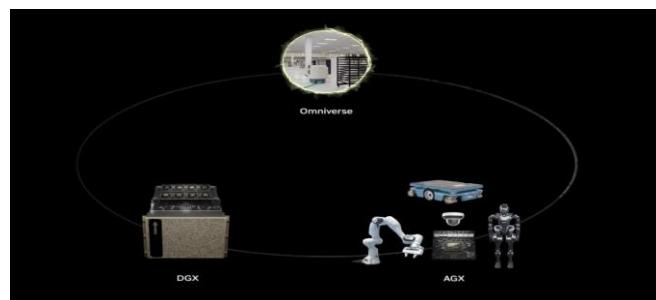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2)

[엔비디아의 애심]

- 엔비디아는 연초 GTC에서 GR0OT 등 컨셉을 공개. 그 이전부터 컴퓨터 보드인 Jeston 시리즈와 Isaac Sim 등 로봇 개발 도구를 제공해오며, 미래 품팩터인 로봇에 주력해온 바 있음. 이번에는 CoRL 2024(Conference on Robot Learning)에서 다수의 휴머노이드 워크플로우 기능을 공개. GR0OT-Gen(3D 환경 구축), GR0OT-Mimic(로봇 동작 생성), GR0OT-Dexterity(정밀 조작), GR0OT-Control(전신 제어), GR0OT-Mobility(이동성 및 네비게이션), GR0OT-Perception(다중 모드 감지) 등. 기존 AI 분야에서의 전략을 로봇에도 동일하게 적용. 단순히 GPU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개발 키트와 SW 환경을 제공하고,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다수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형성. 이미 1X, Agility Robotics, Boston Dynamics, Unitree, Fiedl AI, SKILD AI 등이 엔비디아 생태계 참여. AI 뿐만 아니라 로봇 업계에서의 엔비디아 행보에도 주목 필요

Key Chart: 엔비디아의 추구 방향성(학습-시뮬레이션-배포)



자료: 엔비디아

Weekly Keyword

엔비디아의 애심

지난 주 엔비디아가 CoRL 2024에서 GR0OT 관련 다수의 휴머노이드 워크플로우 기능을 공개. 이미 엔비디아 생태계에 1X 등 주요 기업 모두 참여. 로봇 업계에서 엔비디아 영향력 계속 확대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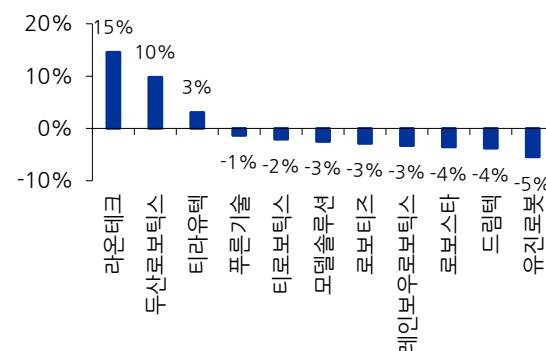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wise

로봇 주요 뉴스(11/04~11/10)

[산업용 로봇]

- 뉴로메카, 강원랜드와 자동화 로봇시스템 구축 계약

[서비스 로봇]

- 클로봇, 인천공항에 사족보행로봇 '스팟' 공급 계약

[기타(정책/부품/SW)]

- 두산로보틱스, 3분기 매출 100억, 전년비 20% 감소

- 티로보틱스, 10분기 만에 흑전. 3분기 매출 +85%yo

- 나비프라, 뉴로메카에 모듈형 자율주행 솔루션 공급

- 박웨이브로보틱스, 공간제작소와 로봇 자동화 협력

[Global]

- 24년 로봇 투자 강한 회복세. 초기 펀딩 감소, 후기 집중

- 트럼프 이후, 탈중국 속 동남아 로봇 수요 증가 기대

- 23년 中 산업용 로봇 기업, 해외 매출 1조 8천억원 규모

- 中 인텔리전스 로봇 기업 상하이투, 프리 A 400억 유치

- 중국 유비텍, 휴머노이드-무인 운반로봇 협동 작업 구현

- 中 드론기업 DJI, 내년 로봇청소기 공개 예정

- 中 샤오피ング,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 발표

- 中 생체공학 휴머노이드 기업 '위에첸팡성', 200억원 유치

- 피지컬 인텔리전스, 4억달러 유치. 기업가치 24억 달러

-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개발 위한 AI와 워크플로우 공개

- 아이로봇, 추가 인력 감축 발표. 105명 해고

- 日 라쿠텐그룹, 도쿄에서 자율로봇 배송 서비스 개시

- 고스트로보틱스, 일본 GMO와 로봇 개발·판매 계약 체결

- 일본 식음료 매장,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 맥슨, 자사 모터가 적용된 휴머노이드 신제품 공개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0)

[트럼프 이후 방산 리스크 점검]

- 트럼프가 승리 이후, 대체로 국내 방산에 긍정적 영향 예상되나, 리스크도 있음. 큰 틀에서는 대외정책 기조상 국가간 협력 크게 약화되고, 자주국방 수요 증가하며 글로벌 무기 수요는 안정적일 것이나, 지역별 /무기체계별 온도차 존재할 것으로 전망. 국내 기업 관점에서 지역별 선호 순서는 아태/중동/유럽이 될 것. 단기적으로 러-우 종전 가능성 존재. 종전 후 실제 무기수요는 꺾일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투심 악화 요인. 미국 압박 확대 속, 유럽 방산 보호주의 확대 우려. 한편, 향후 중동과 아태는 리스크 더욱 고조되고 높은 무기 수요 창출 예상됨. 무기체계 관점에서는 방산 분야에서도 Buy America 정책 강요할 것으로 예상. 대선 전 한-미 방산 FTA 격인 RDP-MOU 체결 없었음. 향후 해외 시장에서 미국산 무기와 경쟁하는 국내 무기체계가 불리한 여건이 놓일 가능성도 있음. 핼리적 서태이 아닌 젱치적 서태 늘어날 가능성

Key Chart: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방산 영향

구분	해리스	트럼프
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산 수요 증가 계속 ■ 라-우 전쟁 계속, 국방 지출 확대 ■ 러/중 점유율 하락 ■ 미/한/독 경쟁 격화 ■ 동맹국 방산 협력 속 GVC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우 종전으로 방산 수요 둔화 ■ 미국 업체 생산 및 경쟁력 강화 ■ 미국 대중동 수출 통제 완화 ■ 자국 중심 정책으로 GVC 후퇴 ■ 유럽도 역내 내부 결속 선회
산업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방산 수출 호조 지속 ■ 현지생산 등 해외 투자 증가 ■ 방산 GVC 진입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산 수요 둔화 ■ 중동 지역 수출 경쟁 격화 ■ 수출 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 우려 ■ 동맹국과 방산협력 후퇴

자료: 산업연구원

Weekly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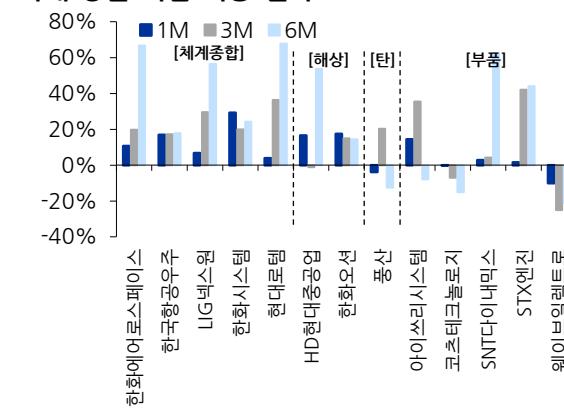
트럼프 이후 방산 리스크 점검

트럼프 승리 이후 방산 수혜 기대감 높아졌지만, 리스크도 다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 여전히 무기 수요는 좋겠지만, 바이든 정권때와 트럼프 정권때는 방산 기업들도 분명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11/04~11/10)

[수주/계약]

-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호주 호위함 수주전 탈락
 - 트럼프 당선 후 한국 조선소와 MRO 등 협력 언급
 - LG·한화, 천궁Ⅱ 이라크 수출 본격 협의

[기업별 이슈]

- 김동관 한화 부회장, 사우디 장관 만나 방산 육성 논의
 - LIG넥스원, 英 밥콕과 MRO 진출 협력
 - KAI, 항공·방산 전자 기업 제노코 인수
 - HI중공업·한화시스템, 해외 함정 수출 협력 추진
 - 현화오션, 오르카 사업 관련 플랜드에 완전 기술 이전 제안
 - 방산용 부품 기업 엔엠씨솔루션 12월 코스피 상장 추진

[기타]

-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 어려울 전망
 - 폴란드 금융감독청장 내한. 정상회담 후속 금융협력 논의
 - 민주당, 방산 수출 시 국회 동의 받도록 법 개정 추진
 - 미국 예비역 장성들 K-9 공장 방문. 미국 필요성 언급

[기타]

- 트럼프 정권이 약조직, 대중/이란 강경파 중심
 - 트럼프 승리 후 중동 불안 고조. 이스라엘 이란 공격 가능성
 -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유에서 시진핑과 회담
 - 英, 7월 발족 신정권에서도 차기전투기 공동개발 지속
 - 伊 레오나르도 트럼프 당선은 유럽 방산업체에 기회
 - 호주군, 군사 위성 GEO 말고 다중 궤도 시스템 구축 추진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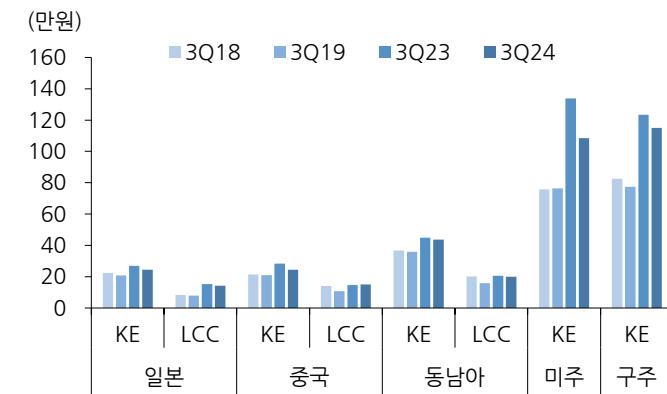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0)

[10월 항공 데이터 및 3분기 항공 운임 동향]

- 10월 국제선 여객 726만명(+7%mom, 19년 동월대비 105%), 국내선 여객 517만명(+7%mom) 기록. 노선별 여객 수(인천공항)는 일본 159만명(+12%mom), 동남아 171만명(+11%mom), 미주 58만명(+3%mom), 구주 45만명(-1%mom), 중국 90만명(+0%mom), 대양주 20만명(+8%mom). 10월은 연휴가 많았고, 연휴 효과는 단/장거리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 일본은 여름에 발생했던 악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구주도 계절성에 반하는 견조한 수요.
- 3분기 실적 자료 기반 노선별 운임 단가를 추정해보면 LCC 중국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비 하락세. 물론 여전히 19년과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으로 운임 하락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제한적

Key Chart: 3분기 노선별 운임 단가 추정치



Weekly Keyword

10월 항공 데이터 및 3분기 항공 운임 동향

연휴 효과로 10월 여객 데이터는 매우 긍정적.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 항공 운임도 전년비 소폭 하락 추세는 이어지거나, 여전히 19년보다는 높은 상황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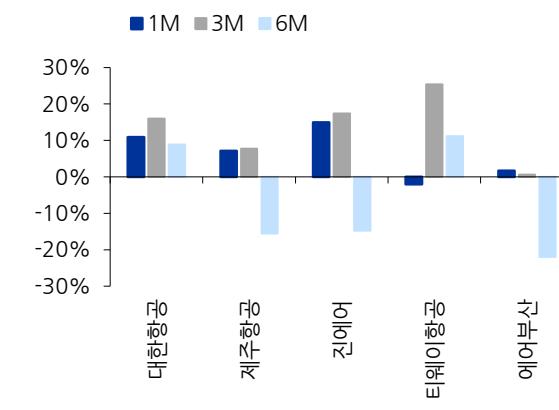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항공 주요 뉴스(11/04~11/10)

[여객]

- 일본노선 공급과잉 속 중국 무비자 수혜 기대감
- 제주항공, 73개 노선 조합으로 '환승고객' 노린다

[기타]

- 합병 앞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CI' 작업 착수
- 제주항공, 자본잉여금 활용해 결손금 보전. 배당 가능성
- 대명소노그룹, 항공사 인수에 계열사 선수금 활용 가능성
-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향방, 결국 '가격'이 문제
- 에어프레미아 주주간 연내 유상증자두고 대립
- 청주공항 이용객 年 400만 명 시대 개막
- 무안공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매일 국제선 정기편 운항
- 에쓰오일도 SAF 전용라인 구축.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 이스타홀딩스, '인수 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 확정
- 인천공항공사, 일본 구마모토공항과 업무협약
- 대한항공, 2024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3년 연속 1위
- 일본 항공유 대란에 한국 수입 수요 증가 전망

[Global]

- 미국 항공주 급등. 트럼프 정권하 규제완화 기대
- 루프트한자-ITA 합병, 매각가격 이견으로 막판 진통
- 에어아시아, 자사 최대 할인행사 진행
- 싱가포르항공, 1조 투입 장거리 노선 고급화
- 비엣젯, 2024년 3분기 이익 전년대비 884% 증가